

치 사

가을의 정취가 이곳 현충원에도 큰 걸음을 내딛은 듯합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처럼 오색의 아름다운 풍요와 같고, 민족과 나라를 위하고자 했던 호국의 마음이 향기롭게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나누겠다는 소중한 마음이 곧 희생이고 봉사이며 호국의 마음입니다. 이곳 현충원에서 선대의 희생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고, 이름 그대로 호국지장사에서 깊은 감동으로 전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나라의 영지에 여러분은 성심을 다해 커다란 집을 지었습니다.

사람이 살 집을 짓는 일은 실로 지대한 공덕입니다. 이에 더하여 인류의 위대한 스승이신 석가모니 부처님을 봉안하는 대웅전을 세웠으니, 불은에 보답하는 크나 큰 공덕과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와 국민을 위했던 숭고한 명령들께서도 보다 편안하게 머무르는 도량으로 위상을 갖추었습니다.

법화경에 아이들이 장난삼아 모래로 탑을 만든다 해도 그 모든 사람들이 불도를 이룩한다고 하셨습니다. 나아가 스스로 함은 물론 남을 시켜 하거나 남에게 권하기만 하여도 불도를 이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모두는 공경심을 내어 한량없는 부처님을 친견하여 더 이상 번뇌가 남아있지 않는 참된 마음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불사는 곧 복전을 이루는 일입니다. 모든 중생이 복에 종자를 심는 큰 터전과도 같으며, 여러분의 동참이 복전에 씨앗을 심는 실천행이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오늘은 이러한 공덕을 나누는 소중한 인연이라 할 것입니다. 결실은 수확하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나누는 것에 그 완성이 있습니다. 오늘의 불사가 얼마나 많은 현대인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나누어 줄 것인지를 생각하면 이 자리가 결실과 풍요의 진정함을 함께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드립니다.

오늘의 회향이 있기까지 세심하게 살피주시고, 항상 지역 주민과 따뜻한 인연으로 시민의 삶에 다가가는 나경원 의원님과 이창우 구청장님께 깊은 고마움을 드립니다. 더불어 호국의 마음을 올곧게 알리며 시민의 편안함을 이끌어주시는 김인호 현충원장님과 류영만 경찰서장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 곳에서 종교의 책무를 다해주시는 청담문중 스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오늘의 정성이 호국영령의 헌신에 보답하는 단단한 반석이 되고 앞으로도 우리 사회를 행복과 평온으로 이끌어 주는 밝은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0월 1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